

백찬 감동의 역사를 만든 제77주년 <광복절>경축행사



강화군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의 백찬 감동의 역사를 만든 제77주년 광복절을 경축” 하기 위해 강화문예회관에서 경축 행사를 개최했다. 경축 행사에는 유철호 강화군수, 박승한 강화군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 박용철 인천시의원,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식전 기념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갈채를 받은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공연과 애국지사 유족소개,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노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개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행사 전·후 시설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철호 군수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열을 이어받아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 건설에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ganghwa **특집**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

- 1면 ▶ 백찬 감동의 역사를 만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2면 ▶ 함께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 유철호 강화군수 축사
- 3면 ▶ 강화군의회 /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축사
- 4면 ▶ 강화뉴스
- 5면 ▶ 강화뉴스
- 6면 ▶ 강화뉴스
- 7면 ▶ 강화&인천뉴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축사

- 8면 ▶ 강화&김포뉴스 / 김병수 김포시장 축사
- 9면 ▶ 역사문화기행
- 10면 ▶ 오피니언 (기고)
- 11면 ▶ 훈훈한세상&건강참살이
- 12면~18면 ▶ 창간1주년 특집 기념축사
- 19면 ▶ 강화투데이 발행인 기념사
- 20면 ▶ 동네가꿈이 (광고)

유천호 강화군수, 선거공보분야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최우수 수상



유천호 강화군수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2년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에서 약속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약서 및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이행절차 체계성 ▲재원조달방안 안정성 ▲철학과 비전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해 자치단체장을 최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유천호 군수는 민선8기 22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분야에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5대 공약으로 ▲광역 교통망,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대 ▲마을 중심 여가시설 확충 ▲적시적소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안정적인 농·축·수산업·소상공인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신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지역개발분야 12건 ▲산업·경제·일자리분야 12건 ▲도로·교통분야 12건 ▲농·수·축산업분야 15건 ▲문화·체육·관광분야 24건 ▲교육·청소년분야 9건 ▲보건·복지분야 22건 ▲생활환경 분야 8건 등 8개 분야, 114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매월,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꼭 점검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공약사항은 강화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자 군민과의 굳은 약속”이라며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을 위해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항과는 별도로 군민의 행정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일자리, 출산·보육, 교육, 주거·정주, 도서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祝 辭

강화투데이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유 천 호
강화군수

강화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화군수 유천호입니다.

먼저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신봉기 대표님과 구성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창간된 강화투데이는 참된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뿐만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윤리의식과 지역발전의 길잡이로서 그 소임을 다해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론지로 그 역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가는 데 강화투데이가 동반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강화군수 유 천 호

박승한 의장&한승희 의원&박용철 의원 “풍요로운 강화” 발전에 한마음!!

| 박승한 의장·한승희 의원, 군 현안사업 적극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방문 !! |



우측) 박승한의장, 박용철 시의원, 한승희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간담회

-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한승희 의원, 박용철 시의원 예산결산위원장실 방문
- 강화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지원 및 민원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인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이용길 본부장 및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 강화섬쌀 등 농·특산물 홍보지원 요청

박승한 의장, 한승희 의원은 지난 16일(화) 9월 회기를 앞두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용철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군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모두 반영해줄 것과 각종 민원해결에 있어서 강화군의회·인천시의회 간 적극 협력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강화지역 상수도 현안사항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용길 본부장(前 강화군 부군수)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의 40%가 넘는 강화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수도 연결관 거리·고지대 수압·혜택가구수 등 상수도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가능한 모든 가구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사후 도로포장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승한 의장은 “이번 시의회 방문은 강화군의 주요현안과 상수도

민원사항을 설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화합의 정치로 강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승희 의원은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용철 시의원님과 함께해주신 이용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강화의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강화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용철 시의원은 강화군의 각종 현안사항을 청취 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강화군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강화군 현안사업들 뿐만아니라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강화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후에 박승한 의장과 한승희 의원은 강화섬쌀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며 강화 농·특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당부했다. 

祝 辭

강화투데이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박 승 한
강화군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의장 박승한입니다!
강화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군민-행정간 올바른 소통창구로서의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군민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접하고,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더 나은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투데이는 중립적인 보도

와 일관성 있는 기사 전달로 우리 지역의 건전한 여론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귀사가 정론직필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

였기에 우리 군이 거듭된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며, 이는 강화투데이가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군정소식 전달과 현장의 군민목소리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언론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군의 좋은정책에 대해서는 박수갈채를 아끼지 말고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발전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정론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론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로 군의 새로운 성장과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지혜를 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화군의 대표 신문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묵묵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신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강화군의회 의장 박승한

강화군, 2023년도 시비 364개 사업 시비보조금 926억 원 신청



시비보조금확보 대책회의(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군은 36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926억 원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유천호 군수, 이태산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민선 8기

공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60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업으로는 ▲체육교실 및 도서관 운영활성화 ▲장애인 회관 신축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 ▲만3~5세아 누리과정 ▲공영주차장 조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농어업인 공익수당 ▲각종 농업·어업·축산시설 지원 ▲주문연도교 및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마을 중심의 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이다.

이날 국·과장들이 시비 확보에 직접 나서 인천시 각 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원장인 지역의 시 의원과 소통해 신청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시비 보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확보된 예산은 각종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추진해 군민들께서 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등 8월 주민세 100% 감면 확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확대에 나섰다.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군 군세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으로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을 공제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호국공원’ 점점 및 보훈 정신 계승위한 사업 확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확대에 나섰다.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군 군세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으로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을 공제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사진제공 강화군 안전총괄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재난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 안전단체,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위험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진단 기간 동안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재해 발생 시설과 노후, 고위험 시설 등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규모 및 화재 취약 노후시설, 야영장,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시설은 사용제한, 사용금지, 긴급안전조치 후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군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직접 자가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자발적인 안전진단 참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전점검표가 배포된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다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에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1]

강화군, 외래·돌발해충 발생대비 선제적 방제 총력



외래·돌발해충대비 선제적 방제현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최근 이상고온과 산림생육시기를 맞아 돌발해충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인 방제에 나섰다.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매미나방 등으로 그을음병을 유발해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의 품질에 타격을 주고, 분비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수액을 빨아 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해 산림에 피해를 준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공동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돌발해충 확산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한 집중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제에는 방제차량 16대, 방제요원 48명이 투입돼 외래·돌발



외래·돌발해충대비 선제적 방제현장

해충의 발생밀도가 높은 산림인접 생활지와 인접 농림지에서 집중 실시된다. 또한, 읍·면에서는 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해 기동 방제에 나서며, 약제를 농가에 공급해 적기방제를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선제적 방제에 나서 마니산, 해명산, 고려산 등 1,28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지상방제단, 읍·면 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군 관계자는 “신종·돌발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신속 방제를 추진해 군민에게 최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한 적기방제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군산, '제3회 섬의 날' '아름다운 섬! 강화도' 홍보 전시관을 열다



강화도 화개전망대(사진제공 강화군청)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섬, 대한민국을 떠우다'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제3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아름다운

섬! 강화도'를 알리는 홍보 전시관을 열었다

군은 행사장에 전용 전시관을 열고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인 교동도의 화개정원을 중심으로 ▲단군이 제천 의식을 거행한 마니산 참성단 ▲고려시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한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도보여행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국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5진 7보 53돈대 ▲한강하구 너무 북녘 땅을 바라보며 걷는 DMZ 평화의 길 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특산물 온라인 판매기획전 ▲막걸리 경진대회 ▲가왕대전 등 기념행사에서 강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름다운 섬 강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요 관광지와 특산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며 "강화군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섬 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군민의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한 강화모범운전자회 봉사

강화모범운전자회는 17대 김경환 회장 외 31명의 회원이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에 교통문화정착과 군민의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강화군의 축제, 지역행사(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해변 마라톤, 수학능력시험, 각종기념일등- 코로나 이전에 시행하던행사)등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타지역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꼭 교통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

폭염 취약 어르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주2회 이상 안부전화



폭염대비 가정방문(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혹서기 돌봄맞춤 1:1 찾아가는 서비스'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노인맞춤돌봄대상자 854명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함께 가구별로 방문해 생활과 안전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직접 파악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따른 건강관리

수칙 및 온열질환 발생시 대응요령을 설명하고, 냉방용품이 없는 어르신에게는 필요한 용품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단군콜센터에서는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돌봄어르신께 주2회 이상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특보 시에는 1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복지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구호 활동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발열,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중추신경 이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호 군수는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장수가 축복이 되는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26일 개막

| 인천 강화서 '비엠엑스(BMX)대회'(8월27일~28일) 열려 |
| 경기도 고양~인천 강화~강원도 고성에서 8월 30일까지 5일간 개최 |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5일간의 대장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2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염원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5번째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대회에 비해 대회구간을 40km('18년 479km, '19년 510km, '22년 550km) 연장해 대회의 난이도를 높였으며, 동호인 대회와 시민참여 행사 개최지를 2019년 1곳에서 올해 3곳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도전과 열정, 평화의 길을 달린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가 개최되고, 인천 강화에서는 이벤트 대회로 '비엠엑스(BMX) 대회'가 열린다.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의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경기도 고양(고양체육관)에서 출발 해 강화-파주-연천-철원-인제-고성(종합체육관)까지 5일간(8.26.~8.30.) 550km구간에서 진행된다.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는 3일간(8.26.~8.28.) 고양에서 철원까지 310km 구간에서 개최되고, 이벤트 대회인 '강화 비엠엑스(BMX) 대회'는

2일간(8.27.~8.28.) 개최된다.

국내외 청소년 17개 팀 150여명, 마스터즈 부분에 국내 28팀 220여명과 동호인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대회는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이 공존하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며 단절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DMZ를 연결과 화합의 상징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통해 남과 북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 신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누리집(www.tourdedm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祝 辭

강화투데이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유 정 복
인천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인 정론직필의 정신을 계승해
다른 언론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유지하고 독립성 있는
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새 시대의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지역언론
역할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며 지역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강화투데이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균형', '창조', '소통'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민과 함께
내딛었습니다. 이제 인천은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세우고, 변화와
변혁을 넘어선 '창조'를 바탕으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정성과 배려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소통'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여정에 강화투데이가 인천시와 시민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8월20일부터 운영!

|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지난 7월 29일 완료 |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연)에서는 북부권 도시공원의 공원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고자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지난 7월 29일 완료하고, 8월 20일부터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시비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8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숲·자연·동물을 주제로 기존 공원의 나무를 이용하여 데크쉼터를 만들고, 곰돌이 물놀이조합놀이대와 나무네트놀이대, 꿀단지의자, 꿀

단지터널, 워터드롭, 그늘막 등을 설치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계절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종 설치검사 합격증이 나오면, 8월20일 운영할 계획이다.

공원관리과(과장 정대성)에서는 “이번 마송 물놀이장이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경험의 기회가 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祝 辭

강화투데이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김 병 수
김포시장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50만 김포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면 및 인터넷을 통한 소식을 알려주시는 강화투데
이 신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급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올바른 여론 형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의 전달을 넘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상을 담아내고, 균형된 여론형성과 참된 비판,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의 길을 갈 것으로 기대하며.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역할에도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8기 김포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통입니다. 김포시의 시정방침인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를 만드는데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장 김 병 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우호교류전 참가

|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등 전시품 13점 출품** |



주산박물관 전시사진(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절강성 주산시 주산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주산박물관 우호 교류전’에 전시품을 출품했다.

중국 주산시에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나루로 왕래하다. 중·한 교류

사 속의 주산(舟山)’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린다.

강화군과 주산시는 2001년 9월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이후 20년이 넘도록 청소년, 문화, 관광 등을 교류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주산시 주산박물관에는 별도 홍보관을 마련해 강화지석묘, 참성단 모형 등 전시품 15점을 전시하며 강화군과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군은 전시회 성격에 맞는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11점과 철종 군복본 어진 및 어의(복제품)를 선정해 전시회에 참여했다. 또한, 특별 전시관에서 열리는 국제 우호도시 사진전에는 강화군의 주요 명소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선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문화재 해외 반출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국외 우호도시와의 문화·예술교류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양 도시의 우의를 증진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 이야기

|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 8.17일부터 2022년도 특별전 개최** |



검단신도시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 현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오는 8월 17일(수)부터 12월 31일(토)까지 2022년도 특별전 ‘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검단신도시 발굴이야기’ 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인 검단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검단신도시 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유구 3,000여 기, 유물 7,500여 점이 확인됐다. 특히 청동기시대에 검단지역은 우리나라 중서부 최대 규모의 취락이 형성된 지역임이 밝혀져 이번 전시를 통해 검단신도시 개발의 역사성을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의 재탄생으로 해석했다.

특별전은 총 3부로 1부 ‘흙의 기억 찾기’, 2부 ‘흙의 기억 되살리기’, 3부 ‘흙의 기억 누리기’로 구성했다. 출토된 유구와 유물을 통해 길게는 수



불로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

천 년에서 짧게는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정치 사회상과 생활 문화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현재 검단선사박물관 수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이 유물들은 2026년 불로동 근린 14호 공원에 새롭게 개관할 가칭 검단신도시박물관에 전시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김명석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 검단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

관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료는 무료, 매주 월요일 휴관)

기타문의 ▶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

☎ 032-440-6790

기고

鎮海樓 진해루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병법서인 『鶴冠子할관자』 「近迭근일」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龐子방자가 할관자에게 물었다.

방자 : “성인의 도는 무엇이 먼저인가?”

할관자 : “사람이 먼저다.”

방자 : “사람의 도는 무엇이 먼저인가?”

할관자 : “兵이 먼저다.”

“兵者, 國家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병자 국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 불찰야) 군사는 나라의 큰일이다. 백성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관계 되니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영의 『유일적 규칙』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같은 의미이겠지요. 이는 평화는 “兵병이 먼저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주장이며, 설득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면한 현실과 가장 절실한 표현이겠습니다. 평화! 평화! 말로만 주장하는 헛바닥 구호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몽유병입니다. 더욱이 강화도는 咫尺之近지척지근에 북한 괴뢰군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 굴욕은 앞서 소개했듯이 백성의安危와 나라의 존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한다.”라는 최고의 병법은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싸우지 않고도 승리 한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은 최첨단의 국방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계 각국이 평화를 주장하지만 이미 그들은 국방력을 탄탄히 다진 다음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폭탄 하나에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화염의 잿더미 속 약소국의 비애는 오로지 백성의 몫입니다.

“兵병이 人道이다”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외지로 나갔다가 강화대교로 들어오는 버스에서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鎮海樓진해루?’ 늘 궁금했습니다. 진해루를 복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하고 궁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필자는 강화대교로 진입하는 강화도의 상징물로서 진해루의 형상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대교의 상징물은 뜻밖의 형태로 조성되었고, 외딴 해안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조형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 맑고 푸르른 날 기어코 탐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발견한 것이 작은 돌 표지석이었습니다. <갯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에 표지문을 간략히 옮겨봅니다. “이곳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와 강화군 강화읍 갯곶리 사이를 배편으로 연결하던 나루터이다. 교통수단의 변화로 1920년 경 나루터가 폐쇄되었으며, 1970년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완전히 폐쇄되었다. 정묘호란과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교통수단의 변화로 ‘갯곶 나루터’가 역사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화도의 주요 관문이었던 진해관(진해루)이 부근에 있었다는 근거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진해루는 강화 10경중에 ‘甲城列譙갑성열초’의 백미이겠습니다. 한데, 현재 갑성열초의 전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필자는 상상되지도 않습니다. 막연할 뿐입니다. 강화도의 주요 관문인 갯곶 나루터가 낭만의 뱃길이 아닌 침략자들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1637년 정축년 정월에는 청나라 군사가, 1866년 10월에는 프랑스 군대와 격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국방력이 강대했더라면, 文武兼全문무겸전 梟勇효용이 절륜한 장수가 국경을 지켰더라면, 백만 대군이 육성되었더라면, 아무리 용감한 대륙의 오랑캐들이 함부로 압록강을 건넌을까요? 또한 조선이 문명국으로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 시절 강대한 대포와 최신식 소총으로 고도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다면, 프랑스 서양의 군대가 함부로 강화도를 침략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겠습니까. 요즘 중국이 사드문제를 들먹거리며 우리 안보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명나라, 청나라 때의 황제국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 대 국가 외교안보 협력국입니다. 국방안보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외교의 독자성마저 잃는 일입니다. 하여 외교안보는 그 나라만의 자발적 주체성입니다. 자주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외교안보에 관여한다는 것은 權謀術數권모술수 궤변입니다. 우의의 동맹국일지라도 자국의 이익이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동맹국 지도자들의 처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동맹의 의리를 초월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역설하지만 “兵병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오직 내 나라의 존망과 내 나라 백성의 생명은 국방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력이 기초하지 않은 평화와 경제부흥은 沙上樓閣사상누각인 것입니다. 끝으로 1627년 강화유수로 제수된 이안눌 공의 진해루에 대한 풍광을 짐작케 하는 시를 옮겨 봅니다. 비록 잡초더미 속 안내 설명문이나 현판이 없는 무명의 건축물이긴 하지만 진해루의 복원으로 미리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해루는 아득히 먼 좁은 내를 누르고 있는데 / 쇄사슬 문루에 둘로 쌓은 성가퀴 길기도 하다 / 한강물은 북에서 갈라진 한 물결이 / 바다 하늘 서쪽을 바라보며 삼면이 이어 닿았네. / 지형은 예부터 험한 요새였으니 / 왕도는 지금과 같이 환히 비치고 있었지 / 난간에 앉아 휘파람 부니 바닷물은 차오르고 / 수많은 배와 물고기 장사치로 붐비고 있네.

축 강화 투데이 독자 여러분! ‘강화 투데이’ 창간 일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본질은 추측과 의혹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新聞신문’은 새 소식입니다. ‘새 소식’은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 까치가 대문 앞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같은 일입니다. 물론 신문은 지방자치 공직사회의 기강뿐만 아니라 우리 민정의 부패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지역 신문은 우선 군정이나 시정을 민간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입니다. 공직자와 군민이 소통하고 독자와 독자 간 화해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곧 풍성한 가을입니다. ‘강화 투데이’ 창간 일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보다 알찬 화제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바투 다가갈 것입니다. 강화 투데이 독자 여러분들의 바른 질정과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점면 환경지킴 사랑해봉사단 발대식



하점면 환경지킴 사랑해봉사단 발대식



하천의 각종 부유물 제거

하점면 환경지킴이 사랑해 봉사단 (단장 구자충)은 7월 19일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저수지, 하천의 환경정화 및 불법 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마을주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점면 환경지킴 사랑해봉사단은 발대식후 고인돌 유적지 주변 쓰레기 정화작업, 창후리부터 장정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정도 장마로

떠내려온 하천의 각종 부유물을 제거하였다.

향후 하점면 환경지킴 사랑해봉사단은 ▲고려산 진달래등 자연생태계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 ▲하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활동 ▲봉천산 땃초나물 등 희귀식물 보호 활동 및 주민 간의 공존을 위한 산불 예방 활동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마을 대청소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하점면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하게 된다. ▢

건·강·참·살·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4차 예방접종 바로알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7월 마지막주) 대비 22.5% 증가하여 일평균 9만 7천 명 대 발생 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세 ~ 70세 이상 고위험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위중증 환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4차 접종, 일상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고령층은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불요불급한 외출·만남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접·밀집) 시설 방문이나 실내 취식, 신체접촉(악수 등)은 최소화 해야한다. 유증상자는 신속히 진료받고,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대기시간 없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PCR검사 당일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QR코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 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검사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

- 권주형 기자

2022.08.0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접종 Q&A

Q1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효과가 있나요?**

지금은 신규변이의 발생,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중증화·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경우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2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안전한가요?**

4차접종은 식약처 품목허가된 백신을 사용하며, 해외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4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로 그 중 93.6%는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으며,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1~3차접종 시 심근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4차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합니다. 또한 50세 이상 4차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미국 CDC 분석에 따르면 이상반응 발생은 50세 이상이 18세 이상보다 더 적고, 접종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4차접종 시 이상사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Q3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50세 이상과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통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입니다.

Q4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언제 하나요?**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가능합니다.

Q5 **4차접종을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재 4차접종은 mRNA백신(화이자·모더나)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19 백신은 어디에서 예약하나요?**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방접단 등록을 통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Q7 **감염 후에는 얼마나 지나야 4차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4차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Q8 **4차접종 이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해야 하나요?**

50세 이상 및 18~49세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의 경우, 확진이력이 있어도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Q9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주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환 상인 23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차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 낮게 나타났습니다.

창간 1주년



강화투데이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



군기, 태극기, 새마을기 교체



2022년 새마을지도자 합동워크숍



연탄 나눔행사



해안가 대청소



사랑에 집고쳐주기



서로 돕는 행복 복지공동체를 실현위한 여름철 김치 나누기 행사



쑥송편 나눔행사



삼계탕 나눔행사

祝辭



조인술
강화군 새마을지회장

“민의를(民意) 대변하는”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참된 언론 되길”

반갑습니다!

강화군 새마을지회장 조인술입니다.

민의를(民意)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
뉴스 창간 1주년을 새마을 가족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창간 후 1년 동안 풍부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강화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대내

외에 알리었으며, 특히 지역 사회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독자
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매체로 발전 했다고 봅니다.

강화군 새마을 회는 2022년도 캐치프레이즈인 “새로운 도전, 살맛
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항상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 축하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안을 주는 밝고 건강한 신문,
강화투데이 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득담은 정론지로서 독자
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언론매체가
되시길 새마을 가족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새마을지회장 조인술

강화 군민의 친구 같은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祝 辭



배 준 영
강화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강화 주민들의 목소리와 진실한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해오신 신봉기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강화의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고 발 빠른 뉴스를 전달하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으로 올바른 지역 언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해왔습니다. 또한, 강화의 '오늘'을 알찬내용과 편집으로 정론직필하여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이끄는 뉴스 통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강화군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강화의 숙원 사업인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 건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추진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화의 크고 작은 사업 예산 확보를 확보해냈고,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챙겨왔습니다.

저의 모든 의정활동 성과들은 7만 강화 군민은 물론, 지역 언론이 강화를 위해 헌신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강화투데이는 저를 포함한 지역의 일꾼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군민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강화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2024년 착공이 예정된 강화~계양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관광객 2천만 시대'에 대비한 문화·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강화를 옥죄고 있는 중첩 규제 해제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합니다.

강화군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강화군민·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핵심 사업들을 풀어가겠습니다.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화투데이가 꾸준히 성장하여, 50년, 100년 뒤에도 강화 군민의 친구 같은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강화군 국회의원 배 준 영



유 선 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화인(人) 오늘의 행복한 삶을 밝히는 길라잡이 역할을 기대하며~

민 의(民意)마음으로 강화인의 오늘을 열어 가는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강화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강화의 오늘을, 내면에서 나오는 직관의 소리를 통해 보고, 들으며 정론직필로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짐하고 창간한지 벌써 한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진력해 오신 신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화투데이는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군민의 삶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군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지역사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신속·정확·공정한 보도로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 언론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강화군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언론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째,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있는 비판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의 중심적인 대변지로서 명실상부한 '강화인(人) 오늘의 행복한 삶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 강화의 생태환경·역사·인문학적 자산을 널리 알리는 공감 기획으로 고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강화의 생태, 환경, 평화, 역사' 홍보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학교의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적 미담사례를 발굴·보도하여 강화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라잡이를 기대합니다.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 선 식

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 언론 참여와 역할을 기대합니다!

祝 辭



장 기 천

사)대한노인회 강화군지 회장

강화투데이의 창간1주년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절제와 배려의 미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노인회를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폭염과 가뭄에 이은 잦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결실의 열매를 맺으며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우리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배품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배움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간이후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정론

직필의 언론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강화투데이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직시하고, 성숙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오신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노인회에서도 지난 시대를 이끌었던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롭게 열어갈 100세 시대를, 봉사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과 존중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에 지역 언론 참여와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창간 1주년이 즈음하여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노인회 강화군지 회장 장 기 천



권 영 택

강화군체육회장

‘강화투데이 신문’ 구독자와 가족 여러분!

오늘 ‘강화투데이 신문’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하며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람직한 언론 문화의 창조와 지역신문계의 발전에 기여한 귀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화투데이 신문은 지금껏 지역의 작은 목소리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소식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제공하고, 일부 이들에게는 편파성을 지적하는 등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창구로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투데이 신문이 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론에서 더 나아가 강화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나날이 성장하는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정론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봉기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거듭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강화투데이 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성이 깃들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체육회장 권 영 택



임 인 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바른 언론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오신 강화투데이 신봉기 발행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며 애독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여 왔습니다.

처음 창간 할 때의 초심을 밑거름으로 강화군의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살아 숨 쉬는 최고의 지역 언론사로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참 언론으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온전히 담아내고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해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귀가 되는 신문으로 100년을 향해 뛰는 신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언론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대해보며 강화투데이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임 인 관

강화투데이 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득담은 정론지로서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祝 辭



정 해 영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우리 지역 곳곳을 살피고 군민들에게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강화군과 강화농업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현장의 소식과 각종 사업의 홍보 역시 중요하지만 농촌지도사업에 있어 핵심이 되는 농업신기술의 현장 실증, 시기별 농작업 및 활용 기술의 보급, 특히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및

기상재해 등을 사전에 전파하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농업인들께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미디어이며 그동안 강화투데이의 발빠른 보도를 통해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모습과 같이 강화군과 강화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독자들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민 의(民意)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 가는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화군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발전해 주실 것을 믿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 해 영



송 왕 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사랑과 신뢰를 가득 받기를

먼저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화투데이 신문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내기 지역 신문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주시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신봉기 대표이사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강화투데이 신문이 그간 값진 1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강화 군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 주어 함께하는 세상 아름답고

행복한 강화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동반자가 되어 함께 뛰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때에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 훈훈한 정이 넘치는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강화투데이 신문이 오랜 역사로 길이 남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담아내고 독자수가 늘어나는 지역신문으로 사랑과 신뢰를 가득 받는 신문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화투데이 신문 구독자와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 왕 근



윤 정 혁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장

강화투데이 1주년 창간을 축하합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속에 차별화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신봉기 대표님의 독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간 사회의 구석진 곳을 비추며 소외받는 이들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기로서의 역할 수행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고귀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변함없는 역할을 해주실것이라 믿습니다.

강화투데이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장 윤 정 혁

미래 동반성장의 디딤돌!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함께 합니다!

G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기업과 구직자, 창업자에게 다양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화군과 강화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祝 辭



구 자 광
강화읍장

지역사회의 곳곳을 밝히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21년 8월 강화투데이가 첫발을 내디딘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하고 공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써오신 신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도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훈훈한 세상 코너를 통해 각계각층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전달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으며,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지역 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지역 대표 신문으로 꾸준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읍장 구 자 광



송 미 영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화의 오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강화투데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높아지고 있고, 사회 진출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도전으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 사회적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관내 소외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강화투데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송 미 영



최 금 자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회장

젊은 생각·바른 신문을 기치로 시대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강화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화인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길을 밝히는 등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보화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폭넓게 모아, 객관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화투데이신문이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정보지이자, 강화지역 발전을 위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 그리고 지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회장 최 금 자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2) 932-4093

지역 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시길

祝 辭



이 한 훈
강화농협 조합장

얼마 있으면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데 좋은 계절에 「강화투데이」의 창간1주년을 강화농협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19의 재확산, 긴 장마와 무더위가 겹쳐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강화투데이의 왕성한 현장 참여로 농촌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여 명실상부한 강화지역 언론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론도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명과 역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을 비롯한 강화군민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창사1주년을 맞아 부단히 힘쓰시고 노력하신 강화투데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농협 조합장 이 한 훈



고 석 현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동안 열정을 보여주신 ‘강화투데이’를 제작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고뇌와 피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고귀한 시간과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친구로서, 어려울때나 기쁠 때 동반자로서, 언론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강화군의 진정한 전문가 패널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강화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강화군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기를 응원합니다.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 석 현



황 의 환
서강화농협 조합장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척박한 지역 언론환경 속에서도 강화군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도에 앞장서온 강화투데이의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

자로서, 독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서,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군민의 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깨끗한 창으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군민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강화농협 조합장 황 의 환

농업·농촌·농협의 3대혁신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쌀 한 톨에 일곱 근의 땀이 배어있다는 뜻의 일미칠근(一米七斤)은 곡식을 키우는 농부의 정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정직한 노력은 오늘의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기본 정신이며 미래의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일미칠근(一米七斤)의 노력으로 도전과 혁신의 길로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큰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주시길

祝 辭



성 문 수
강화신협 이사장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강화신협 5천여 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록치 않은 지난 1년간 강화투데이는 군민의
알 권리와 성숙된 여론형성으로 올바른 지역언론의
역할로 그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지역군민에게는 강화군정 소식과 군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우리 강화의 지역 언론으로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군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력 강한 언론! 강화대표
언론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강화투데이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과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신협 이사장 성 문 수



송 정 수
인천강화웅진축산농협 조합장

강화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건전여론 형성과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신 신봉기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화투데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보다
신속한 뉴스로, 객관적인 보도로, 깊이있는 기사로 강화군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의 접근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화와 강화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행동하고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가는데 강화투데이가 앞장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보도와 깊이있는 기사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 바랍
니다. 그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강화투데이의 밝은 앞날을 인천강화웅진축산농협을 대표하여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민을 위한 착한 신문, 정론직필의 참언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화투데이의 번영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강화웅진축산농협 조합장 송 정 수



권 영 태
강화군산림조합장

강화투데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에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강화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정신
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민의 소통의 장으
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지역발전을 선도하

고 지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는 언론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강화투데이의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화군산림조합은 “산림과 함께한 6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창립60주년 슬로건과 같이 앞으로도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로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산림조합장 권 영 태

인천강화웅진축산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인생길에도 행복한 길로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어부바행복으로 가는 길 신협이 안내합니다.



“산림” 조합을 알면 “살림”이 좋아집니다.

지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객님을 위한 벌초, 묘지정비 서비스 벌초도우미 SJ 산림조합 벌초도우미서비스

창간 1주년 강화투데이

창간1주년 기념사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으며
강화의 발전과 사람중심의 보도로 기여하겠습니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존경하는 강화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민 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자는 취지를
기치로 2021년 8월 '강화투데이'의 첫 걸음을 내
딛은지 벌써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강화투데이는 코비드19라는 세계적 재해의 한
가운데에서 경제적 위기는 물론, 사람간의 교류마저
제한되던 시기를 관통하며 강화군민 간의 소통의
선봉과 강화의 상생발전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바른 지역언론의 한축이 되고자 부족한 인력과
시간은 물론, 각종 어려운 제반 환경안에서도 독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온 1년을 돌이켜 보면 강화투데이가 언론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과 강화군청 관계자님, 그리고 주위의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독려와 아낌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신문은 투명한 경영과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언론으로서 길을 나아간지 아직 오래지 않지만,
1년 여간 함께하며 격려해 주신 강화군민의 응원이 있었기에 군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강화 중심의
시선으로 강화투데이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년, 10년 동안 강화군민과
강화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 과거의 과오는 반추하고
분석하여 미래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삶의 지혜를 제공

하고 발빠른 정보를 통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로 키워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신문을 통해 한 줄 한 줄 기사로 쓰여지는 내용은 강화군민의 입장
에서 강화군민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신념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토대로 다듬어져 채워집니다.

아직은 미래의 꿈을 담은 그릇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강화투데이의
목표가 강화의 발전은 물론,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길임을
되새기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발휘하여 강화 구석
구석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먼저 나서겠습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신문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우리
강화의 발전을 위한 끝없는 제안을 통해 고쳐야할 것은 개선하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가능성과 발전에
집중력을 보여 더 나은 강화와 강화인을 위한 한몫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간1주년을 즈음하여 강화의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강화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하의 말씀,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강화투데이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더 나은 강화투데이가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강화투데이 발행인 신 봉 기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남부농협, 농협 최고 권위상인 『총화상』 수상



강화남부농협은 농협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5개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인화단결, 지역사회 공헌, 농업인 조합원 지원활동, 업적 추진 실적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농협 16곳에 수여하는 상이다. 강화남부농협은 2015년 길상, 불은, 양도, 화도농협이 합병한 농협으로 합병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농협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드는 농협, 강화남부농협」을 비전으로 전 직원이 화합과 헌신으로 건전 경영과 영농지원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화남부농협은 합병 8년차 농협으로 임직원의 화합된 모습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전국종합업적평가에서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강화남부농협 고석현 조합장은 “합병농협으로서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농협 전이용과 성원에 힘 입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나가겠으며, 모든 직원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본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전화 032-937-4181 팩스 032-937-3182

주유소(본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302
전화 032-937-4185
팩스 032-937-4187

영농자재센터(본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33번길 9
전화 032-937-4182
팩스 032-937-3181

강화남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전화 032-937-9802
팩스 032-937-6236

불은지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55
전화 032-937-4690
팩스 032-937-6203

양도지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0
전화 032-937-2181
팩스 032-937-1972

화도지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29
전화 032-937-1181
팩스 032-937-3745